

횡성군 육절려(六節閭)의 정려표창 연기(年記)와 육절 대상인물 고찰

이상균
강원도청

국/문/초/목

이 글에서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5호인 횡성군 육절려의 중심인물인 서예원(徐禮元) 일가가 정려를 받게 되는 경위와 명확한 정려표창 연기(年記)를 밝히고, 5명의 정려가 걸려있음에도 '육절려'라는 명칭을 쓴 사유를 비롯하여 육절에 해당되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고증해 보았다.

서예원은 진주목사로 재직하면서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가족과 함께 전사하였다. 서예원 사후 1811년부터 횡성문중과 지역 유생들이 관(官)에 청원을 올려 1817년 서예원과 그의 처 전주 이씨(全州李氏)에게 정려가 내려졌고, 횡성에 정려각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서예원의 장남인 서계성(徐繼聖)과 그의 처 풍천노씨(豊川盧氏), 서예원의 시집가지 않은 딸의 정려를 청하는 추가 청원을 올려 1832년에 모두 정려를 받았고, 이로 인해 횡성의 정려는 '오정려(五旌閭)'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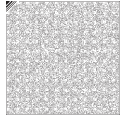
이후 춘천·밀양문중에서 횡성문중 후손들이 서예원의 장파(長派)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려를 밀양으로 이견해 가려고 했으나, 이견하지 못하자 1945년 밀양에 새로운 여각을 새우고 '육절려'라고 명했다. 1945년까지 횡성의 정려각 명칭은 계속 '오정려'로 사용되고 있었고, 1945년 직후 육절려 현판이 걸렸다.

정려를 받은 인물이 5명임에도 불구하고 '육절려'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에 포로로 잡혀 갔다가 13년 만에 쇠회되어 온 서예원의 차자(次子)인 서계철(徐繼哲)의 절의를 함께 기리기 위해서였다. 횡성 문중에서는 5명의 정려표창 이후에 서계철도 함께 정려를 내려줄 것을 여러 번 청원했으나 끝내 정려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정려를 받은 5명과 함께 서계철의 절의를 함께 기려 '육절'로 승모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육절려의 연혁과 역사성을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었다.

주제어 진주성 전투, 오정려, 육절려, 서예원, 서계철

투고일자 : 2014. 01. 21 | 심사일자 : 2014. 04. 14 | 게재확정일자 : 2014. 05. 21



머리말

강원도 황성군에 소재한 육절려는 1981년 8월 5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5호로 지정되었다(사진 1).⁰¹ 이 문화재는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한 진주목사 서예원(徐禮元) 일가 5명에게 내려진 정려이다. 특히,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정려이기도 하다. 여각에는 5명에 대한 정려가 목판에 흰 글씨로 음각되어 걸려있고, 1832년(순조 32) 연기(年記)가 있는 「서씨오정문기(徐氏五旌門記)」와 「서씨오정려기(徐氏五旌閤記)」 편액과 ‘육절려’ 현판이 걸려있다.

육절려 내의 정려는 서예원과 처 전주이씨(全州李氏), 서예원의 장자 서계성(徐繼聖)과 그의 처 풍천노씨(豐川盧氏), 서예원의 딸 5명밖에 없으나 문화재 명칭에서 보듯이 한 명을 더하여 6명의 충절을 기리는 ‘육절’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술 하겠지만 문화재안내문, 신문, 『황성군지』 등 지역에서 간행되는 지면에 육절려를 언급하면서 정려를 받은 5명 외에 한명을 진주성전투에서 서예원 일가와 함께 전사한 노비 김성길(金聖吉)로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다. 그러나 김성길이라는 인물이 실존인물인지와 어떤 연유로 육절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서예원일가의 정려를 받은 연도 또한 각기 달리 기술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천서씨 문중에서는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예원의 6대손 서탁심(徐琢心) 등이 강원지역 유생들과 서예원일가의 정려를 청하는 상서(上書) 등의 소지류(所志類)를 근거로 김성길이 육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문화재 안내문안 등 관련기록들을 수정해 줄 것을 필자에게 요청하였다.⁰² 이 과정에서 서예원일가가 정려를 받는 과정과 정려를 받은 연도, 정려를 받은 5명 외에 육절에 포함된 인물 1명

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증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고증을 위해 조선시대 관·사찬 사료, 문중소장 소지류 등 관련자료, 일제시대 이후 발간된 기록물들의 육절려 소개문안 등을 분석 대조하였다.

유형의 문화재는 형태 자체로서의 중요성에 역사성이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 문화재로서 온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동안 육절려는 단편적인 안내문 정도로 소개되어졌고, 역사성과 연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적(史的) 연구성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의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점에 천착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고증작업을 통해 분석한 사료와 자료를 토대로 서예원일가가 정려를 받게 되는 경위와 명확한 연기(年記), 그리고 5명이 정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절려’라는 명칭으로 불렸는지, 육절의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육절려의 역사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사실(史實)을 글로 남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대중들이 대상 문화재의 가치와 연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서예원 일가의 정려표창과 연기

조선시대에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유교적 윤리를 권장하기 위해 충신·효자·열녀에 대해 그들이 살던 동네 입구나 대문 앞에 붉은 칠을 한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였는데, 이를 정려라고 한다. 조선시대는 풍속교화를 위하여 사회적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충·효·열의 행적이 있는 사람에

01 강원도 황성군 공근면 매곡리 산 11번지에 소재해 있다.

02 이천서씨 문중에서는 그동안 소개되지 않은 문중소장 고문서를 번역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황성 육절려와 서탁심의 상소문」(서정규 편저, 2007, 이천서씨명암공파 종친회)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업무담당자인 필자에게 육절려의 문화재관련 기록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고증내용을 모아 작성하였고, 고문서의 원 사료와 번역문 등 문중소장 관련 자료의 내용도 「황성 육절려와 서탁심의 상소문」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 책의 편자가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황성문화」(황성문화원, 2008)에 재수록하였다.

게 정표하였다. 사족(士族)의 경우는 가문의 명예였으며 공사천(公私賤)의 경우는 면천하여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실제 생활에 이익을 주어 후손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의 전쟁 중에 삼강의 행실이 뛰어난 효자·충신·열녀의 수는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포상함으로써 민심을 격려하고자 하였다.

서예원(1547~1593)과 그 일가가 정려를 받게 되는 것도 임진왜란 중 1593년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 진주목사로 재임 중이던 서예원이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충절에서 비롯된다. 서예원 일가의 정려표창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예원의 행적과 제2차 진주성전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예원은 조선중기에 활약한 무장이다. 서예원의 형인 서인원(徐仁元)은 동인(東人)의 거벽(巨擘)이었다. 이로 인해 같은 동인의 거벽인 이산해(李山海)의 천거로 서예원은 변수(邊帥)로 기용된 것으로 보인다.⁰³ 이후 고종 대에 의관(議官) 안종덕(安鍾惠) 등이 서예원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려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내용에 “선조 때에 무과에 합격하고 곽산(郭山)군수로 임명되었으며, 호란을 당하자 종군하여 많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공로를 세웠으므로 선조는 가상히 여겨 그의 화상(畫像)을 그리도록 명하여 그것을 보고는 김해부사로 임명하였다”⁰⁴라고 되어있으나, 무과급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1583년 함경도의 여진번호 니탕개(尼湯介)가 이웃 추장을 기내(乙其乃)와 율보리(栗甫里) 등을 불러 모아 경원진에 침범하였다. 경원·아산(阿山)·안원(安原) 등의 진보(鎭堡)를 함락시키고 전진하여 종성(鍾城)을 포위하였다. 이때 서예원은 은성(穩城)부사 신립(申稜)과 함께 니탕개의 소탕에

참여하였다. 신립은 니탕개를 유인하여 생포하고, 서예원은 율보리 등을 참수하는 공을 세웠다.⁰⁵ 그러나 1585년 회령(會寧) 보하진(浦下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로 8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강을 건너 적의 근거지를 정탐하러 갔다가 적에게 포위당하여 기병을 잃고 도망하였다. 이 일로 종성(鍾城)에 유배되었다.⁰⁶

이후 1591년 김해부사로 임명되었다.⁰⁷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김해로 향하자 부사 서예원은 초계(草溪)군수 이유검(李惟儉)과 성을 지켰는데, 적이 성 밖의 보리를 베어다가 해자(垓字)를 메우고 성 높이와 같게 쌓아 성을 넘어 쳐들어오자 패주하였다.⁰⁸ 이유검은 먼저 도망간 패장으로 참수되어 효수되었고, 서예원은 파직되어 백의종군 하였다.⁰⁹

1592년 8월 의병장 김면(金洙)의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경상도 지례(知禮)에서 왜적을 격퇴하여 공을 세웠다. 이 때 지례의 적 5백여 명이 사창(司倉)과 객관 등을 점거하고 있자 화공으로 선제공격하고, 화살과 포를 발사하여 천 여명 이상의 왜적을 소탕하였다.¹⁰

1592년 10월 나가오개(長岡忠興)가 병사 3만여 명을 이끌고 전라도로 진격하기 위해 진주성을 포위 공격했다. 김시민(金時敏)이 지휘하는 조선군 3천여 명이 혈전을 벌여 10월 왜군의 총공격을 격퇴했으며,곽재우 등의 의병부대는 성 밖에 진을 치고 왜군의 배후를 위협했다. 6일간에 걸친 접전 끝에 왜군을 격퇴했으나 김시민이 적의 총탄을 맞고 위독해지자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겸 순찰사 김성일(金誠一)의 천거로 서예원은 임시 진주목사가 되어 군사를 통솔했다.¹¹ 그리고 이듬해 1593년 4월 정식으로 진주목사에 제수되었다.¹²

서예원이 진주목사가 되었을 때는 전황이 매우 좋지 못하

03 『선조실록』 권22, 21년 1월 己丑;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10월 丁亥.

04 『고종실록』 권41, 38년 8월 6일.

05 『亂中雜錄』 권1, 선조 16년 2월.

06 『선조수정실록』 권19, 18년 12월 丁卯.

07 『孤臺日錄』 부록, 인명록 서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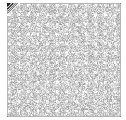
08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4월 癸卯; 『연려실기술』 권15, 『선조조고사본말』 4월 18일.

09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丙辰;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丁巳.

10 『孤臺日錄』 권1, 임진 8월 3일.

11 『鶴峯逸稿』 부록 권3, 『鶴峯金文忠公史料鈔存』 下 亂中雜錄;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10월 丁亥.

12 『선조실록』 권37, 26년 4월 己亥.



였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일어나기 전 진주성의 방어준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신이 이달 14일에 진주성에 도착하였는데, 목사 서예원이 중국군을 지대(支待)하는 일로 나갔다가 저물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변란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중략…신이 최경회(崔慶會)·황진(黃進) 등과 더불어 군사를 겨우 수합하였으나 3천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성안은 넓은데 이처럼 주린 군사로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니 지극히 우려됩니다. 대개 진주는 바로 전라도의 보장(保障)인데 순찰사 이하가 방어를 철수하여 산음(山陰)으로 옮겨갔으니 더욱 우려됩니다.”¹³

진주성 방어를 위해 겨우 수합한 군사가 3천에 불과하고, 그나마 식량문제로 심각한 상태였다. 진주성이 위급하자 김천일이 군사 3백 명을 거느리고서 6월 진주로 달려 들어갔다. 충청병사 황진(黃進)이 7백, 경상우병사 최경회(崔慶會)가 5백, 의병복수장(義兵復讎將) 고종후(高從厚)가 4백, 부장(副將) 장윤(張潤)이 3백, 의병장 이계련(李繼璉)이 1백, 의병장 변사정(邊士禎)의 부장이 3백, 의병장 민여운(閔汝雲)이 2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와서 목사 서예원 등과 수성을 의논하였다. 전투가 벌어지는 중 순성장(巡城將)을 맡고 있던 충청병사 황진이 죽자 서예원을 순성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중과부족으로 김천일, 최경회, 서예원 등이 모두 전사하고 진주성이 함락되었다.¹⁴ 서예원은 사후 선무원종2등공신에 책록 되었고,¹⁵ 병조참의로 추증되었다.

『고종실록』에 서예원이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할 때에 처,

받아들 서계성 내외, 시집가지 않은 딸 등이 모두 전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 앞서 밝혔듯이 서예원을 비롯하여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한 일가 5명이 정려를 받았는데, 그 동안 문화재안내판 및 지역의 각종 발간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육절려의 소개에는 서예원 일가가 정려를 받고 최초로 여각을 세운 연기(年記)를 1692년(숙종 18)으로 기록하고 있고,¹⁷ 출처의 원전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 2>와 같이 육절려 내의 서예원의 정려에 “上之十七年丁丑(1817)”으로 새겨져 있고, 나머지 일가 3명의 정려에는 <사진 4~6>과 같이 “上之三二年壬辰(1832)”으로 되어 있음에도 1692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처음 1692년으로 쓴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예원 내외가 정려를 받은 연대가 처음 나타나는 관찬사료는 『승정원일기』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조(純祖) 정축년(1817)에 이르러 서예원 및 처 이씨, 아들인 생원 서계성, 며느리 노씨, 시집가지 않은 딸 서씨의 정려를 명하였다.¹⁸

이 기록에는 순조 정축년인 1817년(순조 17) 서예원을 비롯한 일가에게 정려를 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강원도 황성군 서씨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소지류(所志類)를 통해 정려에 새겨진 연기와 같이 1817년 우선 서예원과 그의 처 전주이씨만 정려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이 소지들은 당시 황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서예원의 6대손인 서탁심(徐琢心)과 아들 서유(徐宥)가 지역 유생들과 함께 서예원과 관련된 문중 인물들의 정려를 청하는 내용, 그리고 춘천·밀양문중과의 정려 이견다툼 등의 쟁소내용이 담겨져 있다.

13 『선조실록』 권40, 26년 7월 壬戌.

14 『선조실록』 권40, 26년 7월 戊辰.

15 『宣武皇聖清難原從功臣錄』(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2513-429) 중 『宣武原從功臣錄券』(DB자료 p.24).

16 『고종실록』 권41, 38년 8월 6일.

17 황성군, 1983, 『황성의 맥』, p.27; 황성군, 1986, 『황성군지』, p.101; 강원도, 2006, 『강문화재대관-도지정편 1』, p.138; 2003년 세웠던 기존의 안내판 문안(2008년 문안을 수정하였다).

18 『승정원일기』 고종 38년, 6월 22일.

이 소지류를 시기와 내용별로 살펴보면, 1811~1817년 서예원 내외의 정려를 청하는 6개 문건(①~⑥), 1817~1818년 춘천·밀양 문중과의 정려 이 건 다툼 11개 문건(⑦~⑰), 1822~1828년 서계성 내외와 딸의 정려를 청하는 6개 문건(⑱~㉓), 1833~1842년 서예원의 차자 서계철(徐繼哲)의 포증과 정려를 청하는 5개 문건(㉔~㉘) 등 30여년에 걸쳐 청원한 소지류 총 28개 문건이 있다.¹⁹

이 소지류 중 춘천의 종인(宗人) 서용(徐容)이라는 인물이 황성의 서탁심은 문중의 장파(長派)가 아니므로 황성에 세워진 서예원 내외의 정려를 이 건해가려고 하자 서탁심이 1817년 10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관찰사에게 상서(上書)한 ⑦번 소지에 그 해 정려를 받고 정문을 세우게 되어 감읍한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저는 제 6대조이신 진주목사 증 참의 예원공이 계사년(1593)에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일로 오늘 정려의 은전을 입어 소생이 거주하는 동리에 정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곧 백년 된 충혼이 구천의 아래에서 빛을 보게 되고, 더하여 못한 후손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감읍하게 되었습니다.²⁰

이 내용은 육절러 내의 서예원의 여각 연기와 일치하고, 『승정원일기』의 기록과도 일치하다. 단, 『승정원일기』와는 달리 1817년 우선 서예원 내외만 정려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문중 인물들의 정려가 내려지는 연기는 문중소장 소지류와 『순조실록』에서 확인된다.

먼저, 『순조실록』을 보면 1832년(순조 32) 서울과 외방에서 충(忠)·효(孝)·열(烈)에 대해 포장할 것을 장계한 것을 분등(分等) 초계(抄啓)하여 예조에서 상주한 내용에 서계성 내외와 서예원 딸의 명단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효자정려질(孝子旌閭秩)…중략…황성의 고(故) 사인(士人) 서계성…중략…열녀정려질(烈女旌閭秩)…중략…황성의 고 사인 서계성의 처 노씨, 증 참의 서예원의 출가하지 않은 딸…후략…²¹

문중에서 소장한 ⑱~㉓번 소지류를 살펴보면 황성유생 정홍수(鄭鴻隨)와 서탁심 등이 1822년 7월부터 1828년 1월 까지 서계성 내외와 서예원의 딸에게 정려를 내려 줄 것을 황성현감과 관찰사에게 청원한 내용이 있다. 이 청원 이후부터 정려를 받는 1832년까지의 추가 문서는 없으나, 1833년 정홍수 등이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서예원의 차자 서계철의 정려를 추가로 내려줄 것을 청하는 소지류 ㉔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1832년(순조 32) 서계성 내외 등이 정려를 추가로 받았음이 『순조실록』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정축년(1817) 봄에 이르러 예원과 그의 처 이씨가 정려의 은전을 입었고, 예원의 차자 계철은 특별히 죄승지에 증직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임진년(1832)에 도에서 올린 계문(啓文)으로 인하여 예원의 장자 고 생원 서계성과 그의 며느리 노씨, 시집가지 않은 딸이 모두 정려의 은전을 입었습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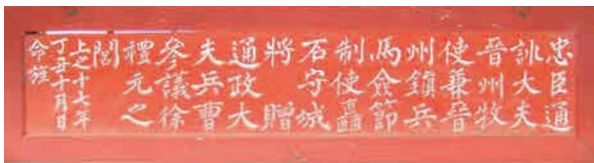
즉, 『순조실록』과 문중 소지류, 육절러 내 여각 연기와 일치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문중과 지역 유생들의 발의로 1817년 서예원 내외가 정려를 받고, 그 해 황성에 여각을 세웠다. 그리고 1832년 서예원의 장자 서계성 내외와 딸이 정려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여기서 서예원에 대한 평가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선조실록』 등의 기록에는 대부분 서예원을 진주성 전투에서 도망하다 비겁하게 전사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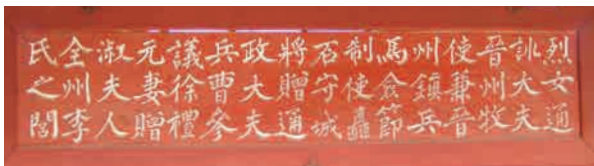
19 서정규 편저, 앞의 책, pp.169~168까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편의상 문건을 시기 순으로 ①~㉘까지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였다.
 20 生以生之六代祖 晉州牧使贈參議禮元 癸巳倭賊時殉節事 今蒙旌閭之恩命 已爲堅門於生之所居里 則使累百年忠魂 有光於九原之下 俾蔑劣苗裔 感泣於穹壤之間.
 21 『순조실록』 권32, 32년 4월 己丑.
 22 至丁丑春 禮元及其妻李氏 蒙恩旌閭 禮元次子繼哲 特贈左承旨 又於昨年壬辰 因道啓 禮元長子 故生員徐繼聖及 其婦盧氏及 未笄女 并蒙旌閭之典.



【 사진 1 】 육절려 전경



【 사진 2 】 서예원의 정려



【 사진 3 】 서예원의 처 전주이씨 정려



【 사진 4 】 서계성의 정려



【 사진 5 】 서계성의 처 풍천노씨 정려



【 사진 6 】 서예원의 딸 정려

그러나 고종 대에 서예원에게 시호를 내려줄 것과 진주 충열사에 추향하지는 논의가 이는 등 서예원은 충절의 인물로 재평가되고 있다. 여기서 임진왜란 직후 영의정 정철(鄭澈)이 명사(明使)에게 올린 글에서, “힘껏 싸우다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사람 중에서 지조와 의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낱알이 들었는데, 서예원을 고경명(高敬命)과 조헌(趙憲)의 아래, 김시민, 송상현(宋象賢), 유극량(劉克良)의 위에 놓으면서 말하기를, ‘적의 칼날에 몸이 가루가 되어도 구차스럽게 살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전거를 들어 서예원의 충성과 절개가 당시에 창의(倡義)한 여러 신하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서예원의 공이 덮어진 것은 훗날 공적을 평가했던 인물들이 서예원을 천거한 이산해와 같은 동인이었던 유성룡이 자기들을 논죄했다는 이유로 서예원에게 그 분풀이를 하여 공적 사실을 덮어버렸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²³

또한 김성일이 유성룡에게 보낸 서간(書簡)에서 진주성의 방어가 그나마 튼튼한 것은 서예원의 힘이라고 했다. 다만, 군대가 먹을 양식이 없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이다.²⁴ 서예원은 이처럼 고종 대에 재평가 되어 1901년(고종 38) 군부대신(軍部大臣)으로 추증되었다.²⁵

육절려의 명칭과 대상인물 검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예원 일가 5명이 정려를 받았고, 육절려 내의 정려 또한 5개만 걸려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어 여각의 명칭이 ‘오정려’에서 ‘육절려’로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1901년(고종 38) 의관(議官) 안중덕(安

23 『승정원일기』 고종 38년, 6월 22일; 『고종실록』 권41, 38년 8월 6일.

24 『鶴峯集』 권4, 書『峇柳西庄』.

25 『승정원일기』 고종 38년, 12월 25일.

鍾憲)이 서예원의 추증과 시호를 내려줄 것을 청하는 상소의 내용이다.

의관 안중덕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중략』고 상신 조인영(趙寅永)이 지은 오정령기에서 대략 이르기를, '진주 전투 때 서예원이 목사로 죽었으니, 그의 의리는 창의한 여러 공들과 같다. 그러나 증직은 가장 낮고 시호 또한 받지 못했으니, 군자들이 애석하게 여긴다. 더구나 공의 온 집안사람들이 난리에 순국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한 절개에 죽고 자식은 효에 죽고 며느리나 딸도 모두 죽었으니 공이 솔선한 때문이다. 공이 이미 나랏일에 목숨을 바쳤으니, 법에 있어 응당 시호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공의 둘째 아들인 서계철이 포로로 잡힌 지 13년 만에 귀환했으니, 그의 감격할 만한 지극한 효심을 끝내 멸할 수 없다. 이 또한 후일에 표창하기를 기다리는 바이다. 그런데 다만 다섯 명만을 정려하는 것으로 그 세운 절의에 같음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²⁶

이 상소의 내용을 보면 당초 육절령이 아니라 오정령이었을 알 수 있다. 이 「오정령기」는 조인영(1782~1850)이 1832년에 쓴 것이다. 현재 육절령에 걸려 있는 <사진 7>의 「서씨오정문기」 현판과 동일한 내용이며 이 현판에 1832년 조인영이 근찬(謹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쓴 연대가 확인된다. 또한 1832년 정홍순(鄭鴻淳)이 쓴 <사진 8>의 「서씨오정령기」가 있다. 그리고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장 후대에 작성된 28번 소지류의 작성연월이 1842년 6월이다. 이 소지류는 암행어사에게 서예원의 차자 서계철의 정려를 내려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를 보면 서계철의 정려가 1842년까지 내려지지 않아 이때까지도 명칭이 계속 '오정령'였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7 】 「서씨오정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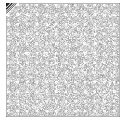
【 사진 8 】 「서씨오정령기」

1817년 서예원 내외의 정려가 서탁심이 사는 황성에 건립되자 춘천과 밀양문중에서는 서탁심이 문중의 장파(長派)가 아니라는 이유로 황성의 정려를 밀양으로 이 건해 가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황성의 서탁심은 춘천·밀양문중과 쟁소를 벌였다.²⁷ 결국 춘천과 밀양문중에서 황성의 정려를 밀양으로 이 건해 가는 것은 실패하고, 1945년 밀양군 이천서씨 세거지인 하남면(下南面:현 하남읍) 수산리(守山里) 동촌동(東村洞)에 황성의 정려와 동일한 여각을 세웠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밀양문중에서 정려를 세우면서 작성한 서영구(徐瑩九 1886~1959)의 『이암연방록(二巖聯芳錄)』(문중소장) 「오정령이건고유문」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혁혁한 육절은 일가가 모두 준걸하네. 다만 이 정려와 비각이 멀리 황성에 있어 생각은 이 건하고 싶으나 오랜 세월 이 행하지 못했네. 『중략』을 유년(1945) 3월 정려를 밀양부 하

26 『고종실록』 권41, 38년 8월 6일; 『승정원일기』 고종 38년, 6월 22일자 기사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27 이 쟁소 문건은 문중소장 소지류 ①~⑦이다.



남편 수산의 동촌에 이견하였다. 문에는 삼강(三綱)이라 쓰고 각(關)에는 육절이라 썼다. 대개 오정려를 육절이라 한 것은 목사공서예원의 중자(仲子: 서계철)가 효도로서 승정원 좌승지에 증직된 때문이다.”²⁸

즉, 1945년까지는 황성의 정려 이름은 계속 ‘오정려’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밀양에 새로 세운 정려는 서예원의 차자인 서계철의 절의를 함께 기려 ‘육절려’라는 현판을 내걸은 것이다. 밀양에서 ‘육절’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기록만으로는 정확히 몇 년부터 황성의 ‘오정려’가 ‘육절려’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황성군의 정려에는 <사진 9>와 같이 육절려 현판이 걸려있다. 서씨문중에서는 1945년 밀양에 정려를 새로 세울 때 밀양문중에서 황성을 방문, 황성 문중과 협의하여 황성의 ‘오정려’ 현판을 내리고 ‘육절려’ 현판으로 바꾸어 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²⁹ 명확한 전거가 없어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다만, 황성에서 서계철의 정려를 추가로 내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을 보면 분명 정려를 받은 인물 5명과 정려를 받지 못한 서계철의 공을 기리기 위해 1945년 이후 ‘육절’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 사진 9 】 육절려 현판

그런데 여기서 정려 표창인물 5명 외에 육절에 포함된 1명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중소장 자료들이 밝혀지기 전까지 <표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현대 황성지역에서 발간된 문헌에는 정려 표창인물 5명에 노비 김성길(金聖吉)을 포함시켜 육절로 밝히고 있다.

【 표 1 】 노비 김성길의 육절 포함 기사

관련기록	노비 김성길 기사
간행위원회, 1978. 『황성향교지』	노비 김성길 등이 함께 순절하여 정문을 명하니 이를 육절려라 이른다.
조동길, 1978. 『강원일보』 기사	노비 김성길까지 강에 몸을 던져 숨졌다.
황성군, 1983. 『황성의 맥』	노비 김성길 등 여섯 명이 죽음을 택했다. 1692년 여섯 사람의 뜻을 기리는 6개의 위패가 모셔진 육절여를 세우고…노비에 불과했던 김씨 등의 충성심을 기리게 했다.
황성군, 1986. 『황성군지』	1692년 6개의 위패가 모셔진 육절여를 세우고…노비에 불과 했던 김씨 등의 충성심을 기리게 했다.

앞서 살핀 1901년 안종덕 등이 서예원의 추증을 청하는 상소의 내용 중 “만아들 서계성은 두 명의 남자 중 금이(金伊), 춘년(春年) 그리고 관에 소속된 하인 5명과 함께 곧장 앞으로 내달려 치면서 싸워 적 수십을 죽이고, 모두 적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³⁰라고 되어 있다. 진주성 전투에서 노비들도 함께 싸우다 전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나 여기서 금이와 춘년이라는 노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김성길의 이름은 없다. 또한 「오정려이건고유문」에 “노비도 또한 의를 따라 순절했네”³¹라는 내용이 있는데 역시 김성길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노비 김성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8년 간행된 『황성향교지』이다. 『황성향교지』의 내용은 현재 육절려에 걸려있는 조인영의 「서씨오정문기」를 참고하여 쓴 것으로

28 赫赫六節一家并僑性此閭閻遊在橫鄉思欲移建積歲未違…中略…乙酉三月移建旌閣于密陽下南面守山之東村而門曰三綱閭曰六節蓋五旌而曰六節者牧使公仲子以孝贈承政院左承旨故也. 徐瑩九(1886~1959). 『五旌閣移建告由文』(밀양문중 소장) 『二巖聯芳錄』; 서정규 편저, 『황성의 육절려와 사탁심의 상소문』, pp.167~168에서 재인용.

29 서정규 편저, 앞의 책, p.30.

30 『고종실록』 권41, 38년 8월 6일.

31 徐瑩九(1886~1959). 『五旌閣移建告由文』(밀양문중 소장) 『二巖聯芳錄』; 서정규 편저, 『황성의 육절려와 사탁심의 상소문』, p.167에서 재인용.

기록하여 놓았으나,³² 『서씨오정문기』에는 노비 ‘김성길’이라는 내용은 없다. 1986년 『횡성군지』의 기사를 끝으로 육절려와 관련된 자료에 김성길의 이름은 쓰지 않고 있다. 『횡성향교지』 이후에 나타나는 노비 김성길의 기사는 『횡성향교지』를 그대로 재인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육절려 내부에 5개의 정려가 있음에도 ‘6개의 위패가 모셔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어떤 연유에서 『횡성향교지』에 김성길이 육절에 포함되어 기록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찾아진 사료 등의 기록 상 노비 김성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횡성문중과 지역유생들이 당초 서예원 일가의 청려를 청하는 소지류에 서계철을 포함시키고 있고, 서예원 일가에 오정려가 내려진 이후에도 재차 서계철의 정려를 청원하고 있다.³³ 1901년 안중덕 등이 서예원의 추증을 청하는 상소에도 서계철의 지극한 효심을 멸할 수 없어 후일 표창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³⁴ 그리고 「오정려이건고유문」에도 서계철의 절의를 함께 기려 육절이라 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서계철은 1818년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으로 증직은 되었으나,³⁵ 끝내 정려는 받지 못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서예원 일가 5명의 정려가 내려진 이후에도 문중에서 여러 차례 청원을 통해 재차 정려를 받고자 했던 서계철을 함께 종배하여 육절이라 한 것이다. 문중에서 서계철의 추승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비 김성길을 정려를 받은 서예원 일가 5명과 함께 종배(從配)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즉, 육절에 해당되는 인물은 ①진주목사 서예원, ②서예원의 처 전주이씨, ③서예원의 장자 서계성, ④서계성의 처 풍천노씨, ⑤서예원의 시집가지 않은 딸, ⑥서예원의 차자 서계철인 것이다.

맺음말

육절려는 서예원 일문(一門) 5명의 정려가 걸려있고,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정려이다. 지금까지 서예원일가가 정려를 받게 되는 경위와 그 연기, 그리고 ‘육절려’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연유와 육절의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육절려의 중심인물인 서예원은 진주목사로 재직하면서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가족과 함께 전사하였다. 이 공로로 선무원종2등공신에 책록되었고, 병조참의로 추증되었다. 이후 고종 대에 공적이 재평가 되어 1901년 군부대신으로 다시 추증되었다.

서예원 사후 1811년부터 횡성문중과 유생들이 여러 차례 관에 청원하여 1817년(순조 17) 서예원과 그의 처 전주이씨에게 정려가 내려지고, 횡성에 여각을 건립하였다. 다시 횡성문중과 유생들이 1822년부터 서예원의 장남인 서계성과 그의 처 풍천노씨, 서예원의 시집가지 않은 딸의 정려를 청원하여 1832년(순조 32) 3명 모두에게 정려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횡성의 정려는 ‘오정려’로 불려왔다.

이후 밀양문중에서 횡성의 정려를 이 건해 가려고 했으나, 이 건하지 못하자 1945년 밀양에 새로운 여각을 세우고 ‘육절려’라고 명했다. 1945년까지 횡성의 정려는 계속 ‘오정려’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1945년 직후 횡성의 정려에도 ‘육절려’ 현판이 걸렸다.

서예원 일가에서 정려가 내려진 인물이 5명임에도 불구하고 ‘육절’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서예원의 차자인 서계철의 충절을 함께 기리기 위해서였다. 서계철은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3년 만에 쇠환되어 왔다. 횡성문중에서는 5명의 정려표창 이후에도 서계

32 간행위원회, 1978, 『횡성향교지』, p.239.

33 문중소장 소지류 ㉔~㉕.

34 『승정원일기』 고종 38년, 6월 22일.

35 서정규 편저, 앞의 책, p.14에 수록된 증직교지 사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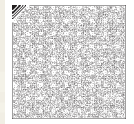


철도 함께 정려를 내려줄 것을 여러 번 청원했으나 끝내 정려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중에서는 정려를 받은 5명과 함께 서계철의 절의를 함께 기려 '육절'로 숭모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문화재에 담긴 구체적인 사실(史實)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육절려의 연혁과 역사성을 밝히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孤臺日錄』
- 『亂中雜錄』
- 『承政院日記』
- 『燃藜室記述』
- 『二巖聯芳錄』(門中所藏)
- 『朝鮮王朝實錄』
- 『鶴峯逸稿』
- 『鶴峯集』
- 古文書—所志類 1~28(門中所藏)
- 간행위원회, 1978, 『횡성향교지』
- 강원도, 2006, 『강원문화재대관—도지정편 I』
- 서정규 편저, 2007, 『횡성 육절려와 서탁심의 상소문』, 이천서씨명암공파종친회
- 조동걸, 1978, 「강원일보」기사
- 횡성군, 1986, 『횡성군지』
- 횡성군, 1983, 『횡성의 맥』
- 횡성문화원, 2008, 『횡성문화』



A Study on the Period of Commendatorying Jeongnyeo(旌閭) of Yukjeollyeo(六節閭) in Hoengseong-gun and People of Yukjeol(六節)

Lee Sang-kyun

Gangwon Provincial Office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how Seo Ye-won(徐禮元) who was the main character of Yukjeollyeo(六節閭) which means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can receive Jeongnyeo(旌閭) and when he received it clearly. Also this thesis concentrates on why the name of 'Yukjeollyeo' was used even if there are five Jeongnyeos in the Yukjeollyeo. Lastly, this thesis also focuses on the people related to YookJeol.

Seo Ye-won passed away with his family in 1593 when he acted as a head of local administration. In that time, the Jinjuseong(晉州城) battle was originated from Korea-Japan war(1592). After his death, Hoengseong(橫城) family(門中) and Confucian scholar made petition for administration in 1811. As a result Seo Ye-won and his wife Lady Lee of the Jeonju-Lee clan(全州李氏) were celebrated as the Jeongnyeo and Jeongyeogak was built in 1817. And his son(Seo Gye-seong:徐繼聖), Seo Gye-seong's wife Lady Noh of the Pungcheon-Noh clan(豐川盧氏), Seo Ye-won's daughter who were not married also could receive Jeongnyeo as Hoengseong family and confucian scholar made additional petition for administration in 1832. For these reasons, Jeongnyeogak(旌閭閣) was called 'Ojeongnyeo(五旌閭)'.

After that, Miryang(密陽) family wanted to move it because Seo Ye-won is not the eldest son in the Hoengseong family. But it could not be enforced and they made a new Yeokak(閭閣) and called 'Yukjeollyeo'. From that time to 1945, the name of Jeongnyeo in the Hoengseong had been still used 'OjeongYeo' and the signboard of Yukjeollyeo was hanged in Jeongnyeo in Hoengseong after 1945.

Although there are five people who can get prize of Jeongnyeo, the reason why the name of 'YookJeol' is to memorize the loyalty of Seo Gye-cheol(徐繼哲) who was Seo Ye-won's second son. Hoengseong family made a representation to the government in order to made Seo Gye-cheol receive Jeongnyeo but he could not be celebrated. For these reasons, the loalty of Seo Gye-cheol with five people who received Jeongnyeo has been celebrated as 'YukJeol'.

Through this study we could find the record of Yukjeollyeo and historic point clearly.

Key Words Jinjuseong Battle, Ojeongnyeo, Yukjeollyeo, Seo Ye-won, Seo Gye-cheol